



##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7(전10권)

시내암 원작 | 이문열 옮김 | 신영우 각색·그림  
반양장 | 46배판 | 200쪽 | 값 9,500원 | 8세부터

ISBN 978-89-6548-116-4 77820, 978-89-94629-14-8(세트)

### 우리 시대의 거장 이문열과 캐릭터의 마술사 신영우가 만났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전 문학 『수호지』의 결정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7권이 비룡소의 만화 브랜드 고릴라박스에서 출간됐다. 대한민국 대표 작가 이문열의 『수호지』를 원작으로 하여, 『키드 갱』으로 국내 만화계에 코믹 붐을 일으켰던 신영우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그려 냈다. ‘캐릭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신영우 특유의 재치와 만화적 표현으로 되살아난 108 영웅호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고 재미있게 『수호지』라는 고전과 만나게 한다.

『수호지』는 『삼국지연의』, 『서유기』, 『홍루몽』과 함께 중국의 ‘사대 기서’로 불리는 고전 명작이다. 이 가운데 서민의 생활상, 다양한 인간상을 그린 가장 서민적인 대중 소설이자 나라의 흥포에 대한 서민의 울분과 바람을 담고 있는 민중 문학으로도 평가받는다.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는 개성만점 주인공들의 특성을 잘 살려 아이들에게 원작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책 뒷부분에는 사진과 삽화가 풍부한 정보 페이지를 두어 아이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어렵고 딱딱한 고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용기와 지략, 신념 등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7권에서는 옥기린 노준의를 두령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오용의 계책과 하인의 배신으로 위기에 처한 노준의를 구하려는 양산박 호걸들 이야기를 다룬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10권까지 나올 예정이다.

#### ● 호방함과 유쾌함이 넘치는 수호지!

신영우는 이문열이 창조한 웅장한 필체의 『수호지』를 호방함이 넘치는 그림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인물 하나, 배경 하나마다 정성을 쏟아 작품성을 높였다. 한편 만화의 재미는 놓치지 않아, 지루할 틈이 없다.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7권에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옥기린 노준의, 생김새가 옥

같이 고운 호걸 남자 연청, 정의롭고 지혜로운 급시우 송강, 양산박의 제갈량 지다성 오용 등 개성 넘치는 호걸들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 ● 어린이도 쉽고 재미있게 읽는 만화 수호지!

『이문열 · 신영우 만화 수호지』는 어른들의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여 아이들이 고전 문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가 아닌 정치, 사회, 문화 등 현대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고전 문학의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배제하고, 뜻풀이를 더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렸기에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은 역동적인 그림 속에 펼쳐지는 108 호걸의 삶을 보며, 옳은 일에 앞장서는 정의로움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배울 수 있다.

### ● 흥미진진 108 호걸을 따라가면 중국 역사 끝!

『이문열 · 신영우 만화 수호지』에는 중국 역사와 문화가 잘 녹아 있다. 송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 당시 사회 체제 및 서민들의 생활상, 더 나아가 창과 봉 등 무기 문화까지 다룬다. 이처럼 다양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아이들이 쉽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책 뒷부분에 학습 페이지 ‘아는 만큼 재미있는 수호지’를 실었다. 또한 ‘수호지 호걸 열전’에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특징,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수록하여 보는 재미를 더한다.

### ● 차례

사로잡힌 구문룡  
금령조괘를 되돌려주다  
함정에 빠진 조개  
옥으로 만든 기린 노준의  
계략에 걸려든 옥기린  
이어지는 잔치  
노준의, 누명을 쓰다  
뇌물의 결과  
가자, 북경성으로!  
아는 만큼 재미있는 수호지

### ● 작가 소개

원작 **시내암** | 중국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활동했던 작가로, 생애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났으며, 관직에 있다 상사와의 불화로 고향으로 돌아가 글을 썼다고 한다. 원나라 말에 장사성이 일으킨 농민 봉기에 참가했으며, 창작에 열중하면서 『삼국지연의』의 작가 나관중과 친분을 쌓았다. 지은 책으로는 『수호지』, 『삼수평요전』, 『지여』 등이 있다.

**윤킴 이문열** |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 영양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람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호모 엑세쿠탄스』, 『리투아니아 여인』, 평역소설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0여 개국 15개 언어로 번역·출간되고 있다.

**각색·그림 신영우** | 1971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94년 『주간 파워』에 『벌거벗은 남자』로 데뷔했다. 『남자 만들기』, 『레드 자켓』, 『키드 갱』, 『더블 캐스팅』, 『서울협객전』 등을 연재했으며, 이 중 갱스터 육아 코미디 『키드 갱』과 쌍둥이 형제의 복수를 그린 『더블 캐스팅』은 각각 TV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는 평범한 상황을 만화적 코드로 풀어내는 발군의 재능과 연출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만화의 자존심이라 일컬어진다. 현재 레진코믹스에 『더블 캐스팅 2014』를 연재하고 있다.







**주요 지**  
**요점 요약**

**1인자보다 뛰어난 2인자 노준의**

'뛰어난 2인자 없이 성공하는 1인자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송강이 후에 두 령으로서 양산박을 훌륭히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노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만든 기린**

노준의는 명은 가문 출신에 외모가 출중할 뿐 아니라, 스스로 경사를 이룰이 기상 자리에 오른 능력자입니다. 한마디로 '기린아', 즉 슬기와 재주가 넘달라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린'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이 긴 아프리카 초식 동물이 아니라, 길조를 뜻하는 전설 속의 동물을 말합니다. 옛 중국 사람들은 기린이 세상에 나타나면 이질고 훌륭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준의의 별호가 '육기린(육으로 만든 기린)'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실력도 1등, 인격도 1등**

'산동의 급시우, 하북의 육기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노준의는 송강처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 호걸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복경 제일의 갑부였지만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학문이 깊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서너 명의 양산박 호걸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었고, 봉술에 있어서는 기하 천화제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으며, 기마술 또한 양산박 내에서 최강이었습니다. 때문에 송나라 조정에서는 송강이 아닌 노준의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1인자가 아닌 2인자 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그가 '하북(해위 강 북쪽 지역)의 삼절(세 개의 뛰어난 것 또는 뛰어난 인물) 중 하나'라는 별명답게 굳은 절개와 높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  
**요점 요약**

**광제의 애첩도 반한 꽃미남 연청**

용모가 수려하고 비단결 같은 피부 때문에 '남작'라 불린 연청. 그는 꽃 모양 문신을 하고, 풍소를 불며 노래 부르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활과 씨름에도 능해,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양산박 최고의 멋쟁이였습니다.

**꽃 문신을 한 활의 달인**

연청은 입술이 붉고 눈동자가 짙은 검은색이며 하얀 피부에 꽃 문신을 새겨 넣어, 생김새가 옥같이 곱다 하여 '남작'라 불렸습니다. 송나라 황제의 애첩이자 동경에서 으뜸가는 가생 이사가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미남이였지요. 하지만 곱상한 생김새와는 달리 날아가는 기리기를 맞춰 벌이드릴 정도로, 활의 명수라 불리는 소리 광 화영과 양백을 이부는 활의 달인이었습니다. 다만 화영이 커다란 대궁으로 적을 우수수 쓰러뜨리던, 연청은 작은 크기의 단궁이나 노궁(오늘날의 작궁)으로 백발백중을 자랑했습니다. 씨름 솜씨 또한 대단해서 양산박의 말쟁꾸러기 흑신종 이규를 기술로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만능 비서실장**

연청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를 노준의가 데려다 키웠는데,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 노준의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청 또한 이러한 노준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몇 번이나 목숨을 걸고 노준의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문무를 겸비한데다 일 처리에 민첩이 없었기 때문에 양산박에서 중요한 전략을 짤 때는 예외 없이 참여했으며, 특히 첩보 작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뛰어난 의모, 출중한 무예 실력, 뛰어난 머리에 의리가 지! 만약 연청이라는 만능 비서실장이 없었다면 노준의는 1인자가 불가능한 2인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